

Sermon 21 February 2016

Psalm(시편) 27, Luke(누가복음) 13:31~35

제 생각에 교회의 가장 큰 위험중의 하나는 교회가 교회자신의 언어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입니다.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언어 그리고 영상은 약간의 의미 또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 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물론 아름다운 말씀들, 이미지들, 상징들은 멋있을 뿐 아니라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지난 화요일 Holy Family 성당에서 세계교회 사순절예배에서 어떤 분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현대모양의 세례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예배당을 들어오는 사람의 주의를 끌고 그 앞에서 멈추고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 하는 지에 관하여, 물에 관하여, 죄를 씻음, 치유, 헌신과 서약에 관하여서 말입니다. 교회 건물들에 관하여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 우리는 정말 상실감을 느낄 것 입니다. 이것은 “집”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존중합니다.

다시 언어와 이미지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양육이 우리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세상에도 어떤 것을 제공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모르는 사람을 우리들 중에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지 우리자신들 끼리 만 이야기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쨌던, 제가 생각할 때 때때로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 나이 또래의 대부분 사람들 같이, 저는 예수님께서 금발 머리에 푸른 눈을 가졌다고 상상하고 자랐습니다. 마치 여기 있는 많은 스테인 글라스 창문에 묘사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여성들과 남성들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중동인의 외모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문화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종간의 분리를 뛰어넘어 아마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 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셨습니다.

어떤 이미지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을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사순절 동안 예수님과
여정을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꽤 올바르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한다고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한 형상화로서 인간의 육체로서의 하나님은
무엇과 같으실까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더 큰 그림이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모순된 생각들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비판적이고 판단력 있는
눈을 가지고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당당하신 형상의
이미지와 함께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우리의 믿음과는 대립되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날카로움과 유한 상황 둘 다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헤롯의 의도,
헤롯의 위협에 관하여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헤롯을 여우로 부릅니다, 그것은 칭찬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은연중에 풍기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고, 억압적이고 그리고 사랑이
부족한 것에는 진정으로 판단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의 마음을 상징하는 장소인 예루살렘을 위한 갈망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삶을 받아들이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그것 자체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과 아마 믿음의 삶에 너무 휘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암탉이 새끼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사랑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이 문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여서 저는 오늘 설교에 같은 문장을 따라 가진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우리를 돕고 양육시키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지와 익숙해 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제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분명히 모순되는 발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잠시 멈추고 양육되기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우리 발 밑의 반석으로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여정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람들과 함께 교류 하신 것, 오늘 성경봉독에서 주님께서 그것에 관해서 긴급함을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책 한 권을 빌렸습니다 그 책은 달리기 경주자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긴 속고와 함께 끝을 맺습니다, 그는 지역과 도시 그리고 나라를 통해 달리는 사람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속도에는 긴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멈추어 섰습니다. 저자는 그가 관찰한 달리기 선수를 흥미로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기심과 약간의 동정심에 관한 것 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단지 보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자유를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더 밀접한 접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더 이상 요구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리기 경주자를 그의 생각에서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경주자 에게 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달리기 경주자와 연락이 끊어진 후 그의 삶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투쟁을 아름답게 표현 한 후에,

그는 달리기 경주자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경주자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그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 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성찰은 그 선수와 함께 그의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쟁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나 경주자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쉽게 기관에서 마음대로 쓰고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지를 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복음에 기초로 한 비유의 이야기 입니다. 책을 읽음으로 다른 은유와 다른 언어를 사용함을 통한 직접성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읽고 듣는 그 말씀의 익숙함으로 그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직접적이고 주님은 우리와 익숙한 이미지들, 말씀들 그리고 상징들에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순절 여정은 오래 전 추상적인 의식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을 통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 하시는지를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